

접속장애·환율오류 등 사고 잇따라 제4인뱅 설립, '안정성' 주요 화두

금감원, 5년간 전산사고 163건 토스 64건, 카뱅 64건, K뱅 35건 인터넷은행 심사시 기술혁신 보다 '안정성' 비중 확대 계기 될 수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접속장애와 환율 정보 오류와 같은 전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안정성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재점화하는 시점에서 전산 안정성이 주요 인가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전산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 64건, 카카오펌크 64건, 케이뱅크 35건이다.

최근 카카오펌크는 지난 17일 오후 3시29분쯤부터 26분간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펌크는 그에 앞서 진행한 프로그램 업데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를 취소한 뒤 서버를 재시작함으로써 1차적으로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그런데 실제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던 핵심 원인은 업무 담당자가 앱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상향 조정하면서 부하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모니터링 기능을 다시 낮췄는데, 이 과정에서 8분간 앱 접속 지연이 재차 발생했다.

카카오뱅크는 두 차례에 걸쳐 오류가 발생했지만, 오지급이나 착오 송금, 이중 결제 등 직접적인 금융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앱 접속이 안된 탓에 공모주 청약 못했다는 등 고객 민원이 총 18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토스뱅크는 엔화 반값 환전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약 5만건, 총 283억8000만원 규모의 환전이 이뤄졌다. 일본 현지에서도 약 600건(330만원)이 결제됐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에서도 내부 통제 및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시 ▲혁신성과 포용성 ▲자본조달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핵심 평가 요소로 꼽힌다. 다만 영업점 없이 비대면으로만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전산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인가 심사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요소다. 금융당국도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서 위기상황 대응 체계와 대주주의 자금 공급 계획 등을 보완적 심사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잇따른 사고가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서 '기술 혁신'보다 '운영 안정성'의 비중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는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 예방 체계와 실시간 모니터링, 복구 프로세스, 내부통제 수준까지 입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에 대해 자본력 미흡 등을 이유로 불허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지속가능성과 함께 시스템 안정성 검증도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점포가 없는 대신 앱과 시스템이 곧 영업점인 만큼, 전산장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며 "제4인터넷은행 인가 논의에서도 혁신성 못지않게 장애 대응 능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갖췄는지가 핵심 평가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김민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청년누리 장학생들과 함께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MG새마을금고, 대학생 100명에 장학금

‘MG 청년누리 발대식’ 성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2026년 MG 청년누리 발대식’을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MG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학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2026 MG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100명이 참여해 ▲장학증서 수여식 ▲활동 안내 ▲팀 활동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

생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을 넘어 장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 씽킹 교육, 취업 특강, 금융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다.

선발된 청년누리 장학생에게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3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공헌 참여형 프로젝트, 역량 강화 특강,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들이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경험하며,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중동위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불가피

“건설산업, 유가 20% 상승시 토목 7%, 건축 4% 원가 상승”

중동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건설경기 침체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사비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전쟁 이전인 지난달 27일 71.2달러에서 이달 13일 145.5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했고,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WTI)도 40% 이상 뛰며 10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가능성 발언에 장중 14% 넘게 급락하는 등 유가 변동폭이 롤러코스터인 상황이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유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유가의 상승을 야기했지만 원유의 유통 자체는

우회 수출 등을 통해 큰 문제가 없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중동 위기는 원유의 생산은 물론 유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경우 유가가 20%만 상승해도 토목공종은 7%, 건축공종은 4%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원가에서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은 건설중장비에 활용되는 유류비다. 기계경비의 30% 수준을 차지하며, 토목공종의 경우 기계경비의 비중이 15%에 달한다. 이외에도 윤활유 및 아스팔트 계열의 석유화학제품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건축공종 역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원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야구 시즌, 반값 티켓·간식 할인 받아요”

구단별 신용카드 혜택

KB국민 두산베어스 홈경기 50% 삼성 ‘라이온즈카드’ 입장료 50% 신한 LG트윈스·한화이글스 카드 롯데 자이언츠 입장권 10% 할인

2026년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구단별 경기 입장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입장권 혜택뿐 아니라 팬 상품(굿즈)·식음료 할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026년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구단 제휴 카드를 활용해 경기 입장권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KB국민카드는 두산베어스 구단과 제휴해 ‘두산베어스 KB카드’를 출시했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티켓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할인 금액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1만원 또는 2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두산베어스 홈구장 식음료 20%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야구장 전용 주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타자’를 활용해 잠실야구장에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잠실야구장 내 식음료 업체를 이용하는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카드는 삼성라이온즈팬을 대상으로 ‘삼성라이온즈카드’를 내놨다. 삼성카드는 삼성라이온즈카드를 이용하면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1만원 또는 2만원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KBO리그 시범경기 LG트윈스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제한된다.

삼성라이온즈몰, 삼성라이온즈팀스토어 이용 시에도 반값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매장에서 식음매장 이용 고객에게는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G트윈스, 한화이글스 팬이라면 신한카드를 주목할 만하다. 신한카드는 ‘LG트윈스 신한카드’, ‘한화이글스 신한카드’를 선보인다.

LG트윈스 신한카드 이용 고객이라면 LG트윈스 홈경기 티켓 예매 시 3000원 할인 혜택(일회 제공)을 횡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화이글스 신한카드 이용 고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회 한화이글스 홈경기 티켓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로카인 메가시티(LOCA in MEGACITY)’를 이용하면 롯데디자인츠 입장권 10% 할인받을 수 있다. 월

할인 한도는 3000원이다. 이 외에도 롯데월드 부산, 스카이라인루지 부산 등과 같은 테마파크 이용, 온라인·오프라인 쇼핑 이용 할인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공식 제휴 카드가 없는 곳도 사업자 표시전용카드(PLCC) 등을 통해 야구장 입장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쓱닷컴(SSG.COM) 삼성카드’는 전월 실적을 충족한 뒤 입장권을 예매하면 최대 10%까지 쓱머니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쓱머니를 활용해 SSG랜더스 예매처인 쓱닷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놀(NOL)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가 NOL 포인트로 적립된다. 키움히어로즈의 공식 예매처가 놀(NOL) 티켓인 만큼, 해당 포인트를 활용해 티켓 구매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더샵 프리엘라’ 특공 경쟁률 78대 1 기록

75가구 모집에 5859명 몰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 특별공급 경쟁률이 78대 1을 기록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샵 프리엘라 특별공급 75가구 모집에 5859명이 몰렸다.

유형별로 생애최초가 3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2373명, 다자녀가 276명, 기관추천 17명, 노부모부양 13명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59㎡A형 14

가구 모집에 273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약 195대 1로 가장 높았다. 소형 평수인 44㎡ 타입에 6가구 모집에 1100명 이상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신청자가 몰리며 중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더샵 프리엘라는 포스코이앤씨가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영등포구 문래동 5가 일원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